

신안군, 핫플레이스서 '이장 회의' 일석이조

뮤지엄파크·섬티아고·퍼플섬 등
딱딱한 회의장 벗어나 순회 개최
애향심 키우고 벤치마킹 기회
군수가 직접 주재 만족도 높았

신안 핫플레이스에서 열리는 '신안군 마을 이장 회의'가 눈길을 끌고 있다. 마을 지도자들이 지역 곳곳을 방문해 변화된 마을 모습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지역 사랑을 키우고 벤치마킹의 기회로 삼고 있어서다.

19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매월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마을 이장 회의'를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웃 섬의 유명 관광지 야외에서, 때로는 박물관에서 열리는 것이다.

신안군은 섬으로만 구성돼 있다. 전국의 섬 3000여개 중 1004개가 신안에 있다. 이 중 유인도는 76개이며, 나머지는 무인도다.

다리가 이어지기 전에는 어선 등을 타고 섬과 섬을 오가야 하는 탓에 마을 이장이라도 다름 섬을 방문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연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11곳은 이미 개통됐고, 2곳은 준공을 앞두고 있어 섬과 육지를 오가는 교통편이 더욱 편리해졌다.

신안군은 14개 읍·면 343개리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도 343명이 있다. 이들은 매월 주기적으로 '이장 회의'에 참여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회의실에서 딱딱한 의자에 앉



신안 안좌면 마을 이장들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자은 뮤지엄파크'에서 열린 '이장 회의'에 참석한 뒤 관광지 답사에 나섰다. <신안군 제공>

아 '이장 회의'를 진행하지만, 신안군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핫플레이스 떠오른 유명 관광지에서 '이장 회의'를 열고 있다.

지도·비금·하의·안좌·도초면은 신안의 비대면 관광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자은 1004 뮤지엄파크'에서 이장 회의를 열었다.

암태·팔금면은 '도초 환상의 숲'에서, 압해읍은 섬티아고로 유명한 12사도 순례길이 있는 '증도 기점'과 '소악도'에서 각각 개최했다.

목포까지 쾌속선을 타고 2시간이 넘게 걸리는 흑산도는 신안의 핫플레이스인 보라색의 성지 '안좌 퍼플섬'에서 최근 이장 회의를 열었다.

유명 관광지에서 열리는 이색 회의에 이장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고 신안군은 전했다. '신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지 몰랐다', '틀립 축제가 열렸던 임자도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섬이 이렇게 변했다니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는 등 찬사가 이어졌다고 한다.

한 이장은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신안의 자랑거리를 알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 "신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신안군 '이장 회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마을 이장 회의'를 읍·면장 주재로 군정 공지사항 전달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신안군은 군수가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다. 또 군수가 관광지 안내까지 맡으면서 이장들의 만족도가 높다.

신안군은 앞으로 이 같은 방식의 이장 회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우량 군수는 "코로나19로 다른 사·군 방문이 어려운데 이번 이장 회의를 통해 몰랐던 신안의 또 다른 명소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색채 디자인, 한 섬에 하나의 박물관 등을 건립하는 '1도 1뮤지엄' 사업이 이제 서서히 빛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이선성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 '온림아트마켓' 연다 내일 온림산방...수공예품 판매

진도군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독특한 수공예품 판매와 다채로운 공연·체험 등을 진행하는 '온림아트마켓'을 21일 온림산방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온림아트마켓'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진도에서 생활하는 예술가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과 미술품을 판매한다.

온림아트마켓에 참여하는 품목은 생활도자기, 양초 공예품, 디퓨저와 생활한복, 전통 소품은 물론 다육수제 화분, 엽서 노트 등 웹툰 작품이다. 또 진도군 아트상품, 라탄 공예품, 뜨개소품, 진도울금 비누도 구매했다.

가을 온림산방을 찾아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도 펼친다.

도자기, 천연염색, 채색체험, 꽃물 손수건, 압화타일자서, 비누 만들기도 체험할 수 있다. 추억의 DJ, 진도북놀이 등 국악과 통기타, 마술, 세계민속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된다.

먹거리는 진도 특산품을 활용한 진도대파빵, 울금빵, 대파 스크와 유기농 터치커피, 수제청과 수제과자, 진도 썩을 활용한 송편도 함께 판매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온림아트마켓에 참여하면서 몸과 마음을 위로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지역 갈등 지혜롭게 푼다"...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예비 배심원 100명 위촉
군정 소통의 장 마련 기대

해남군은 중요정책과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 다수의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민배심원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군민배심원제는 민선 7기 주요 공약으로 군정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배심원단은 법률전문가와 지역개발, 문화관광 등 5개 전문 분야의 시민들로 구성됐다. 배심원단이 심의대상결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군민 참여형 의사결정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군정의 중요 사안을 군민과 함께 숙의하고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17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판정관과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군민예비배심원 등 모두 108명을 위촉했다.

군민예비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100명을 선정했다.

또 안전 상정의 공정성을 위해 군의회 추천과 법률 전문가, 군민단체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대상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판정관으로는 법률



전문가를 선정했다.

만 19세 이상의 군민은 5명 이상의 연서로 안건을 신청할 수 있고, 심의대상으로 상정된 안건은 군민법정을 구성해 군민배심원 회의에서 판결한다.

해남군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내실있는 군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해 12월 중 모의법정을 열어 예행 연습을 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앞서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와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군민배심원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배심원제가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 실현의 초석이 돼 지역갈등 해소와 화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없는 운영으로 군민 소통과 열린 군정을 실현하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군은 지난 17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판정관과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군민예비배심원 등 모두 108명을 위촉했다. <해남군 제공>

영광군 e-모빌리티 산업, 국정목표 실천 '우수상'

지자체 경진대회 전국 2위

영광 'e-모빌리티(전기동력 운송수단)산업'이 성과를 인정받았다.

영광군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0 국정목표 실천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e-모빌리티(전기동력 운송수단)산업'이 전국 2위를 차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행안부가 5대 국정목표를 주제로 공모했으며, 총142개 지자체가 응모했다.

이 중 영광군 등 한 지자체 6곳이 본선에 올라 지난 17일 전북 완주 지방자치단체개발원에서 현장 발표를 했다.

영광군은 이날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사례'를 발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모빌리티 산업생태계 구축'은 기반 구축, 산업 육성, 산업 확산, 산업 융합 등 4단계 플랜으로 구성됐다. 오는 2025년까지 100여 개의 관련기업을 유치해 2000개의 일자리창출을 통해 영광의 미래를 이끌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계획안은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정책의



김준성 영광군수(왼쪽 다섯번째)와 직원들이 '2020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하나로 발표한 '미래형 친환경차' 육성 정책에 적극 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민선 6기 취임 직후부터 대마전기차산단을 기반으로 e-모빌리티산업 등 발전 잠재력이 높은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유치·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인정받았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민관 모두가 힘을 모아 추진하는 'e-모빌리티 산업'이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무척 기쁘다"며 "민선 6·7기에 거둔 값진 성과를 기반으로 e-모빌리티산업 등 발전 잠재력이 높은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유치·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인정받았다."

/영광=이중훈 기자 jylee@kwangju.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0729-중-44360호

성장에 중요한 시기 성장판 닫히기 전에!

소중한 우리아이
성조숙증이 걱정된다면
한약 치료로!

"성장을 방해하는 성조숙증
제때 검사와 치료가 중요해요"

성조숙증은 내 아이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성장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 정서, 성격 형성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백기원 한의원

저희 서정한의원은 25년간 진료하며 쌓아온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성장을 걱정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직한 진료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대면진료 가능
정부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오니 전화 혹은 온라인 문의 바랍니다.

성조숙증클리닉 서정클리닉
서정한의원의원
seojung.com

예약문의 | 24시간 전화 예약가능
02-515-8585

소아비만, 성조숙증, 성장장애를 동시에
체질을 고려한 성장장애치료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1(삼성동 37-15 서정빌딩)
본당선 선정동역 2번출구에서 약 60m / 라마다 서울호텔 맞은편